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 사사기 7:1-8 / 초월, 은혜

M: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니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도입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아닌 소수의 힘으로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남겨진 군사는 오직 300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대지 1: 초월

기드온의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그들의 장비와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군대를 모았을 때는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숫자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숫자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가 자신의 힘과 숫자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의 수를 줄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상식이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더 많은 자원,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보이시고, 우리의 한계를 통해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1만 명도 다시 300명으로 줄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것이 바로 너의 승리가 아닌 나의 승리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지 2: 은혜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실 때,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두려운 자들은 먼저 떠나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는 물을 마시는 방식에 따라 남을 자와 떠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단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로,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술이나 무기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 특수 정예부대가 아닌 그냥 군대로 모인 사람들 중 300명이었습니다. 설사 남은 300명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3만 2천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능력과 자원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기도 / 사사기 16:23-31

교만 / 회복의 약속

M: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도입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적들을 물리쳤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대지 1: 교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그는 자신의 비밀을 무책임하게 드러내어 결국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삼손의 모습은 인간의 교만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대지 2: 회복의 약속

삼손이 블레셋의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그의 기도는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교만과 타락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늘 교만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혼란과 하나님의 은혜 / 사사기 21:15-25 /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인도하심**M: 사람의 계획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시다.**

도입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인 21장 15-25절은 이스라엘이 도덕적, 영적 혼란에 빠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도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의 혼돈을 잘 보여주며,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와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지 1: 인간의 죄성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죄로 인해 큰 전쟁을 치른 후 그들을 멸절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그 해결책이 역시 인간적인 판단과 타협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여인들을 끌어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결정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우선 시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반복되는 주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21:25)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실패를 가져옵니다.

대지 2: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과정은 비록 인간적인 해결책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결론 및 적용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하나님의 섭리 / 에스더 4:13-17**우리의 위치 / 믿음의 결단**

M: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보내신 자리입니다.

도입

에스더서 4장 13-17절은 유대 민족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시점을 다룹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 유대인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고, 왕비 에스더는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맞물려 작용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대지 1: 우리의 위치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이 전멸할 위기 속에서 그녀의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위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위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대지 2: 믿음의 결단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기에 망설였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론 및 적용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 있으며, 그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위치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어진 자리와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할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